한국 기독교 이단 비율 8.2%, 최대 59만 명 추정!

근래 개신교 뿐 아니라 전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단'이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부 이단의 비윤리적 만행을 폭로하고 여과 없이 보도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이단 및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그동안 거의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4일 바이블백신센터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3년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 이단 비율을 측정하고, 실제 이단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단 실태와 신앙의식 등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이단 비율은 8.2%(교회 출석자 기준), 인구 수로 환산하면 최대 59만 명 정도의 이단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이단교회 신자들이 일반 개신교인보다 젊고, 이단 교리와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굳건하며, 이단 신자의 전도율은 일반 개신교인보다 3배나 높다는 점이다.

이번 〈넘버즈 203호〉가 이단의 실태와 이단 신자들의 특성, 이단에 대한 일반 개신교인과 목회자들의 인식 등을 파악하여 한국교회 내 이단 유입을 차단하고, 이단으로의 신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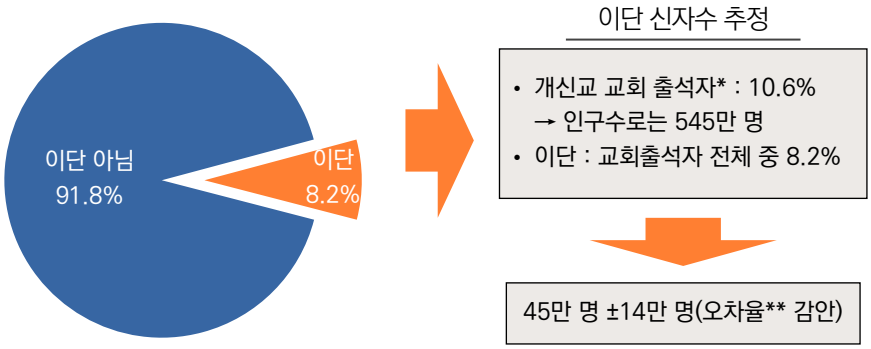
조사 개요

구 분	이단에 대한 인식 조사	이단 실태 조사	목회자 이단 인식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중 이단에 속하지 않은 자	현 이단에 속한 자	전국 교회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모바일 조사 (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858명(유효 표본)	총 304명(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하여 개신교인 2,000명 추출 후 이단 신자 스크리닝	편의 추출	교회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2.2%p	-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05월 12일 ~ 05월 31일(20일간)		
조사 주체	바이블백신센터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이단 신자 실태]
한국교회 이단 비율 8.2%, 최대 59만 명 추정!

- 전체 교회 출석자 중 이단 신자 선별 과정(아래 Note참조)을 거쳐 이단 신자의 비율과 수를 추정해 보았다.
- 조사 결과, 이단 신자는 전체 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8.2%로 나타났다. 최근 한목협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한국 개신교인 비율이 15.0%이고, 그중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교회 출석자가 10.6%였는데 이를 인구수로 환산해 545만 명이라고 보면(2023년 1월 주민등록인구 5,143만 명 기준) '이단 교회 출석자'는 45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조사의 표본오차율(±2.5%)을 감안하면 이단 신자 비율은 5.7%~10.7% 사이에 분포하고, 이를 다시 인구수로 환산하면 최소 31만 명~최대 5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이단 비율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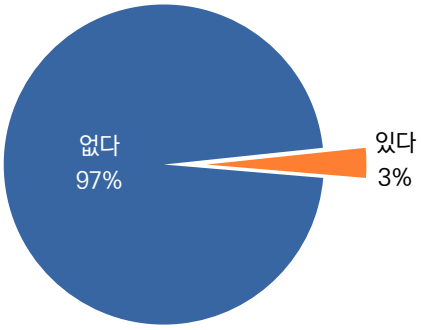
Note) 이단 신자 선별 과정
1. 교회 출석자 대상으로 소속 교단을 질문하여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파 응답자 선정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만민중앙교회, JMS, 구원파, 통일교, 김기동 성락교회/CBA, 다락방/류광수 계열, 하나님의교회, 안식교, 몰몬교, 기쁜소식선교회/IYF/박옥수 계열, 아가동산)
2. 전체 교회 출석자 대상 이단 여부 재설문 ('출석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인가' 질문에서 '그렇다' 응답자)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표본오차율: ±2.5% (95%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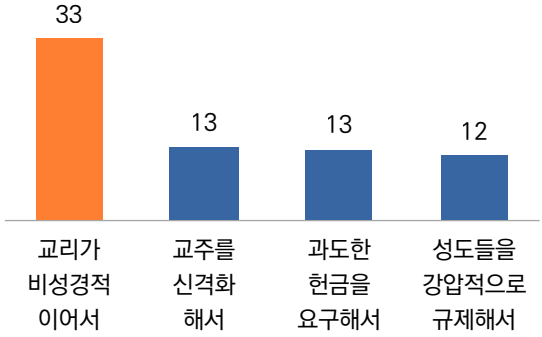
◎ 일반 개신교인 중 이단에서 돌아온 자 3%에 불과!

- 현재 일반 개신교인 중 과거 이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체 개신교인 중 이단 출신자는 3%로 나타났는데 현재 이단 비율이 8.2%인 것을 감안하면 이단에서 일반 개신교로 돌아오는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들이 이단에서 나온 이유는 '교리가 비성경적이어서'(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교주를 신격화해서'(13%), '과도한 헌금을 요구해서'(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과거 이단 소속 여부 (일반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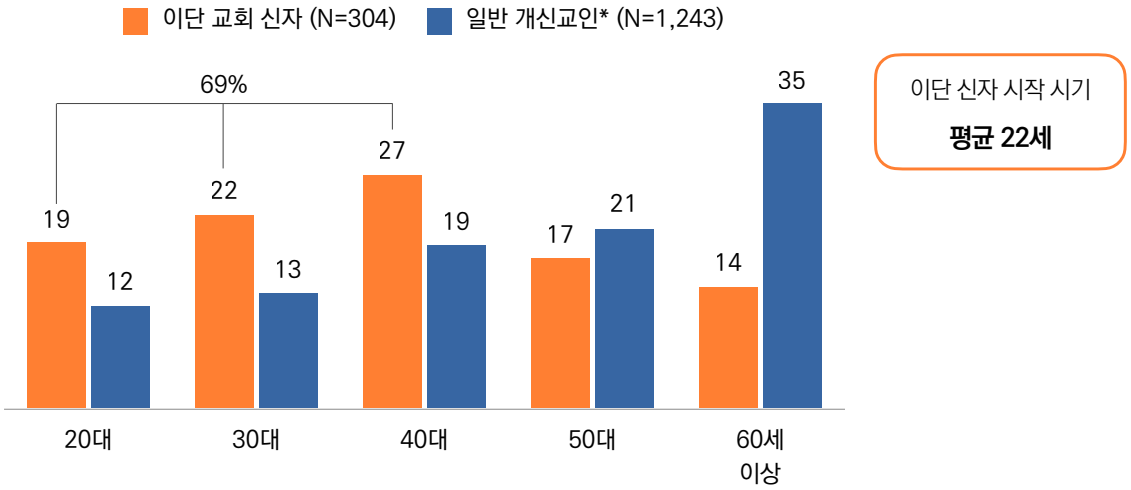
[그림] 이단에서 나온 이유 (과거 이단 소속 경험 개신교인, 상위 4위, %)



◎ 이단 신자 특징 : 40대 이하, 1인 가구, 미혼!

- 이단 신자들의 연령별 특성을 일반 개신교인과 비교해 본 결과, '이단 신자'의 경우 40대 이하의 젊은 층 비율이 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일반 개신교인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점이 주목된다. 이단 신자가 현 종파에 소속된 시기는 평균 22세로 나타났다.
- 또, 이단 중에 '미혼자'와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단들이 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짐작게 하는 데이터이다.
- 주일 예배 참석 빈도별로 보면, 일반 개신교인보다 이단 신자가 상대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이단 VS 일반 개신교인 연령 비교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일반 개신교인 1,243명, 온라인조사, 2023.01.)

[표] 이단 응답자 특성 (각 특성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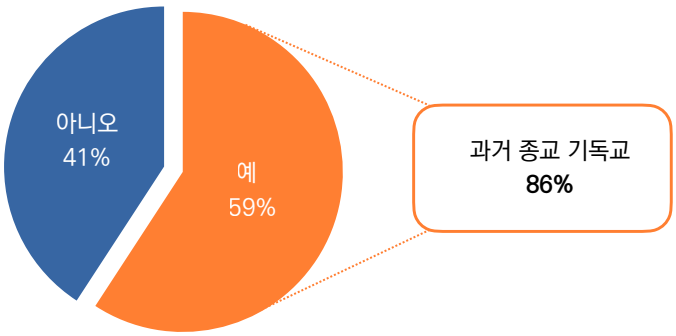
구분		이단	일반 개신교인
전체		100%	100%
결혼 여부	기혼 (이혼/사별 포함)	65%	75%
	미혼	35%	25%
가구 수	1인 가구	26%	14%
	2인 가구	17%	23%
	3인 가구 이상	56%	62%
주일예배 참석	매주	57%	70%
	월 2~3회	23%	20%
	월 1회	5%	3%
	월 1회 미만	15%	7%

*각 특성별 세로 합이 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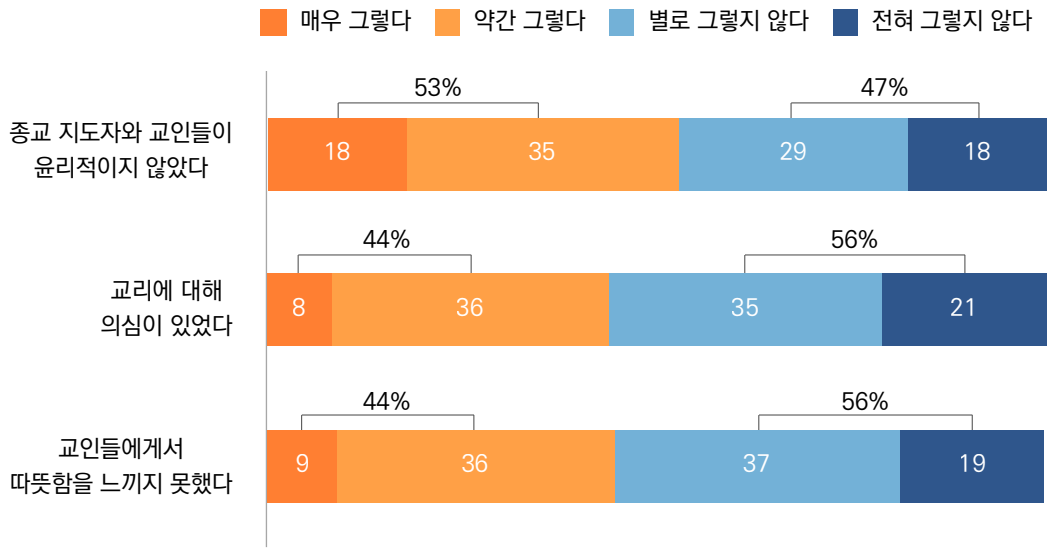
◎ 이단 신자 중, 이단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 41%!

- 현재 이단 신자에게 과거 종교 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과거 종교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였고, 이 중에서 과거 활동한 종교 중 86%가 '기독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예 처음부터 이단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경우도 41%나 되었다.
- 과거 종교 생활 평가(현 이단 소속 신자) 중 '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았다'에 대한 동의율(매우+약간 그랬었다)은 절반을 넘었고(53%), 교인들의 태도(따뜻하지 못함)에 실망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과거 종교 활동 여부 (현 이단 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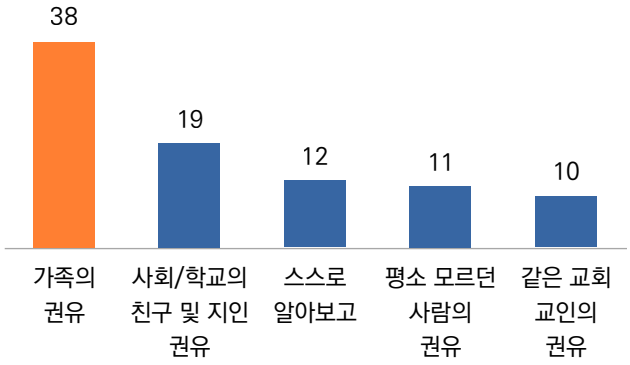
[그림] 과거 종교 생활 평가 (현 이단 신자 중 과거 종교활동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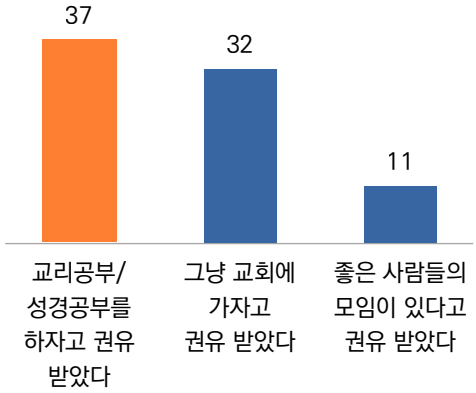
◎ 현 종파 활동 계기, 10명 중 4명은 가족 권유로!

- 이단 신자들은 어떤 경로로 이단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가족의 권유, 즉 '가족을 통한 전도'가 38%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친구나 지인의 권유' 19%, '스스로 알아보고' 들어간 경우도 12%나 되었다.
- 그럼, 이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까? 처음 종파 활동 시 권유받은 내용은 '교리공부/성경공부를 하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특이점은 '그냥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비율도 32%나 된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상 이단에 대한 분별 인식이 없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개신교인보다는 무종교인이 호기심, 지인과의 관계 등의 요인으로 가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현 종파 활동 계기 (현 이단 신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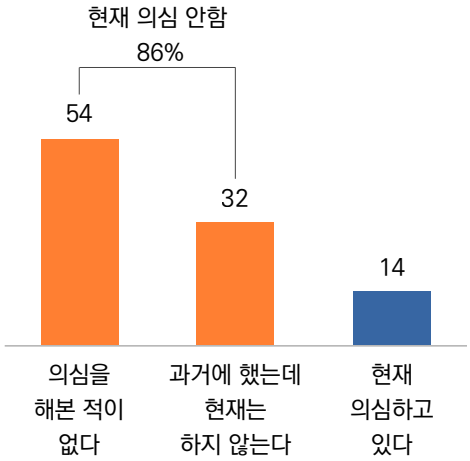
[그림] 현 종파 활동 권유받은 내용 (현 이단 신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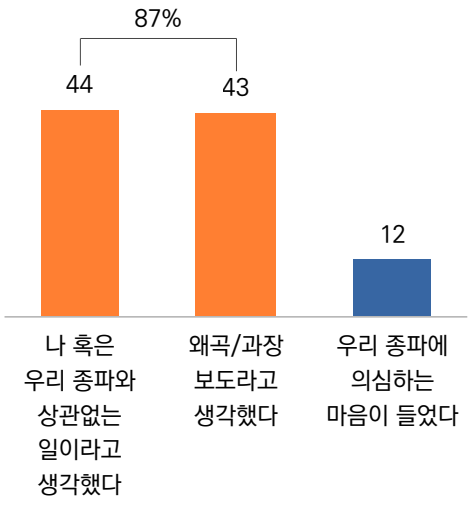
◎ 이단 신자 86%, 교리/지도자 의심 안 해!

- 비성경적인 교리, 이단 지도자의 신격화 등을 의심하여 이단에서 나온 이들도 있지만, 이단 교인 대부분은 교리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대다수 이단 신자는(86%) 교리나 지도자에 '의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의심하고 있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이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통해 이단을 탈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 언론의 이단 보도도 '나 혹은 우리 종파와 상관없는 일'(44%) 혹은 '왜곡/과장 보도'(43%)라 생각하는 경우가 90%에 육박해 이단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교리와 지도자에 대한 의심 (현 이단 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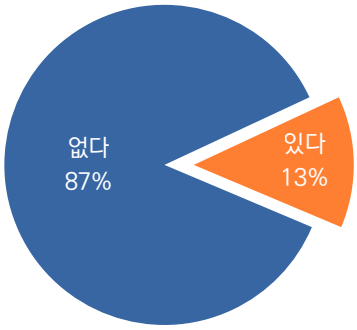
[그림] 언론의 이단 보도에 대한 생각 (현 이단 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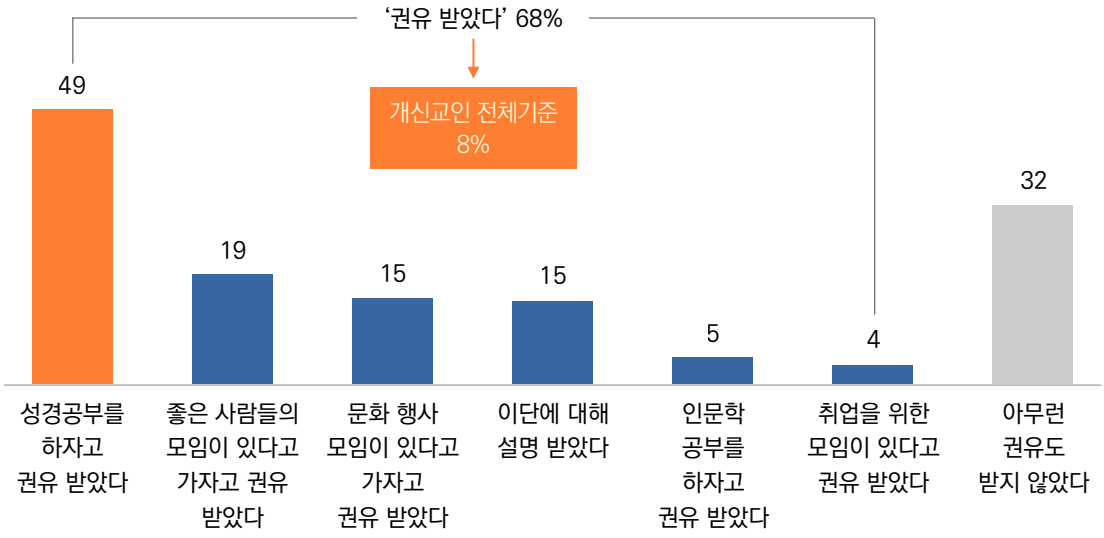
02 [일반 개신교인의 이단 인식]
이단 가족/지인으로부터 이단 모임 권유받은 경험 68%!

- 일반 개신교인 중 이단이 아닌 19세 이상 성도 1,858명을 대상으로 이단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족/지인 중 이단 소속자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있다'가 13%로 나타나, 개신교인 7명 중 1명 정도는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이단들의 포교 대상자로서 잠재적 위협 가운데 있다.
- 가족/지인 중 이단이 있는 경우, 이들 가운데 68%가 실제 이단 모임에 성경공부, 각종 모임 등의 형태로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전체 개신교인 기준으로 하면 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가족/지인 중 이단 소속자 여부 (일반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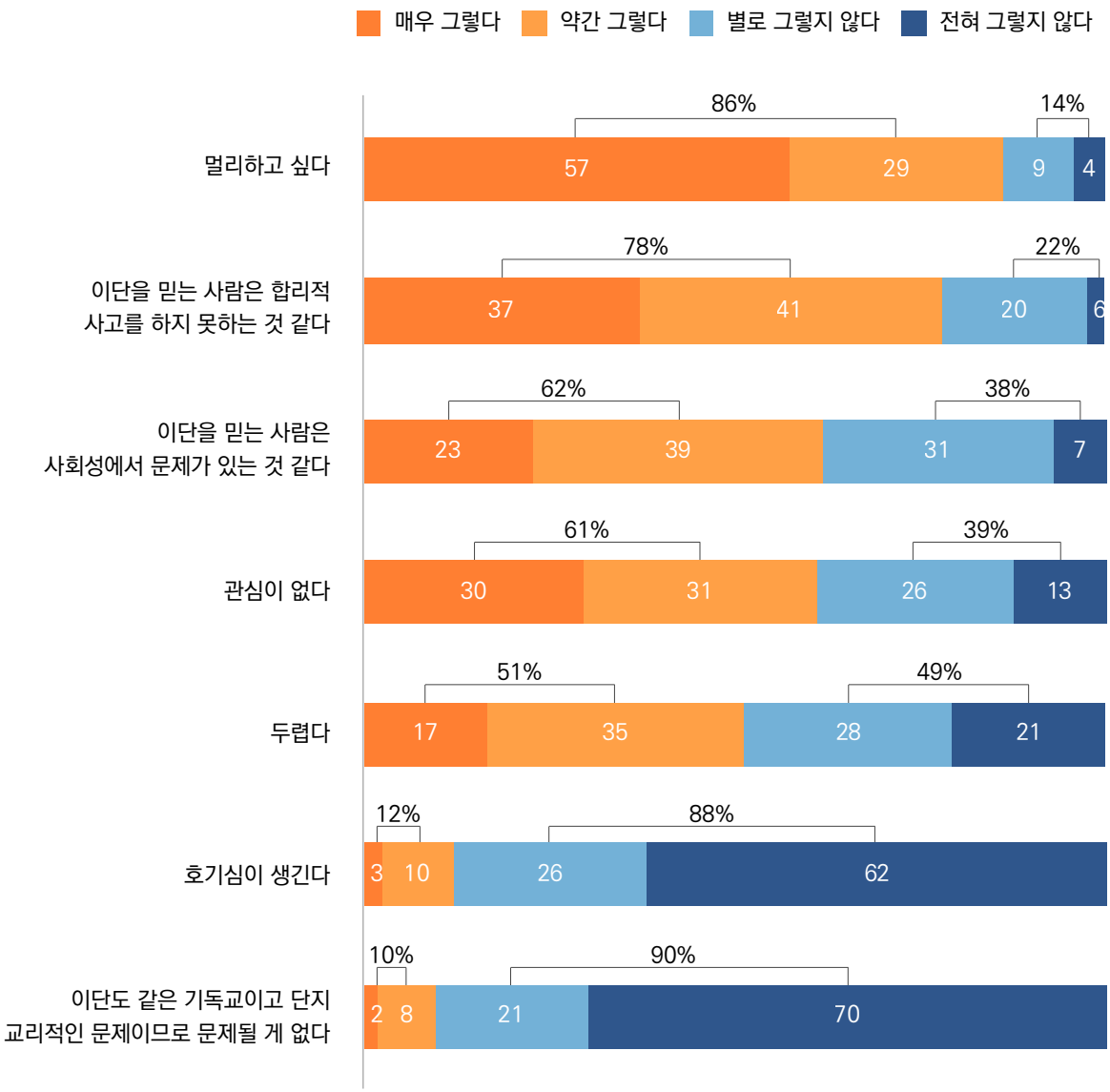
[그림] 이단 모임 권유받은 경험 (가족/지인 중 이단 있는 개신교인, 복수응답, %)



◎ 일반 개신교인, 이단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10%는 우호적!

- 일반 개신교인의 이단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물었다. '멀리하고 싶다', '이단을 믿는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 이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동의율이 80% 안팎으로 높았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61%나 차지했다.
- 다만, '호기심이 생긴다', '이단도 같은 기독교이고 교리적 문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우호적 의견도 각각 12%, 10%로 응답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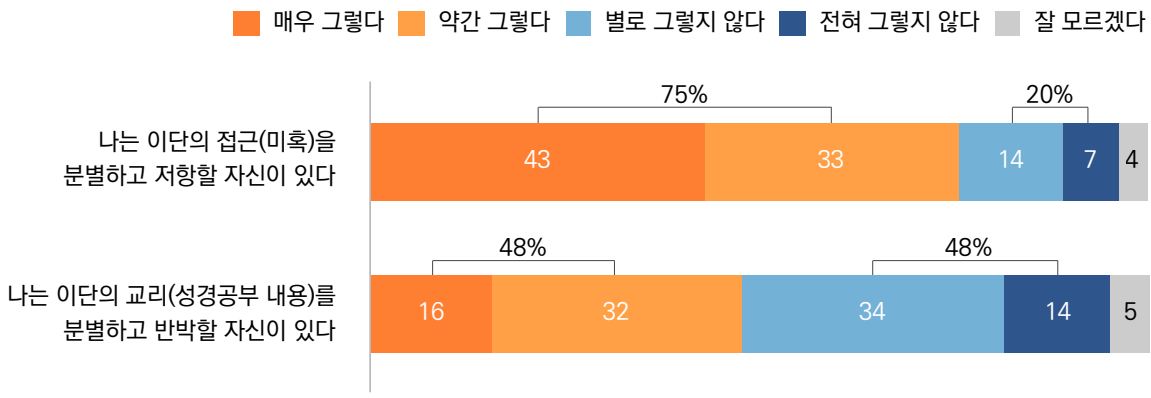
[그림] 이단에 대한 인식 (일반 개신교인, %)



◎ 일반 개신교인 중 '이단 분별/반박할 자신 있다', 절반도 안 돼!

-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단과 그들의 교리에 대해 얼마나 분별하고 있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단의 접근(미혹)을 분별하고 저항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명 중 3명(75%)에 달해 '이단에 저항할 수 있다는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 그러나,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개신교인의 절반가량이었고(48%), 이 중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이는 '성경 말씀을 통한 이단 교리 반박' 등 보다 적극적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개교회의 이단 대응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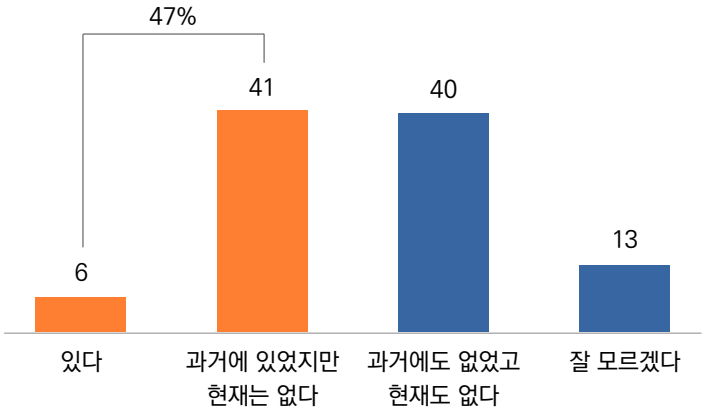
[그림] 이단 교리 및 접근에 대한 인식 (일반 개신교인, %)



03 [목회자의 이단 인식] 한국교회 절반 정도, 이단에 빠진 교인 경험!

- 이번에는 목회자(전국 담임목사 500명)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목회자 절반 정도(47%)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교회 내 이단의 포교 활동이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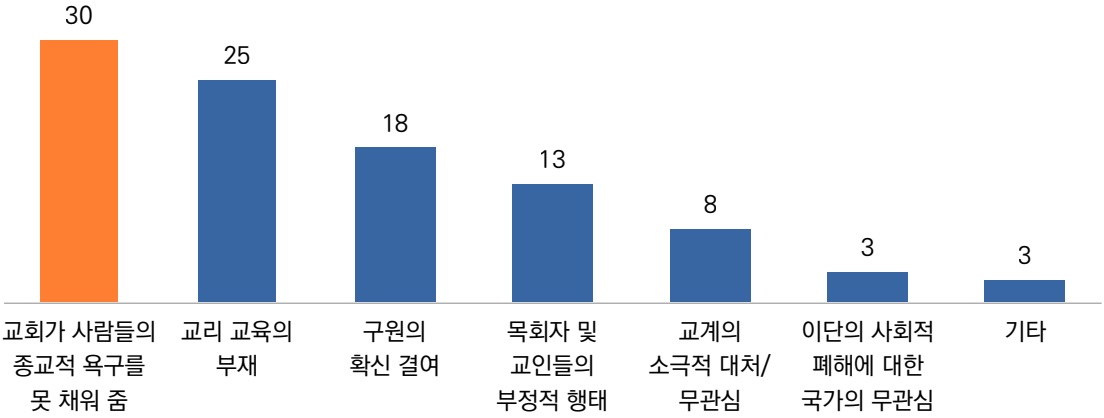
[그림]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



◎ 이단 확산 이유, 교회가 종교적 욕구 못 채워줘서!

- 이단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목회자의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 줌'(3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교리 교육의 부재'(25%), '구원의 확신 결여'(18%) 등의 순이었다. 위의 3가지 이유는 한 연결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 결여는 교리 교육의 부재 등 말씀의 부재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에 교인들은 종교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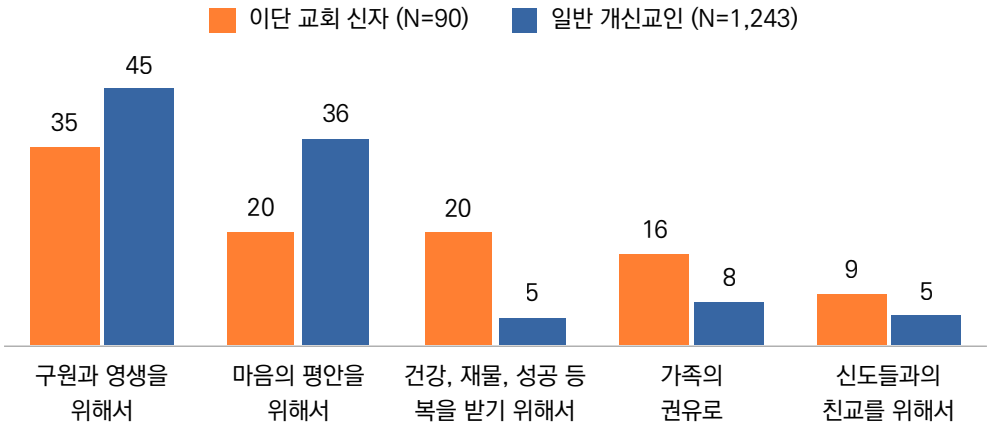
[그림] 이단 확산 이유 (담임목사, %)



04 [이단 신자 vs 일반 개신교인 비교]
이단의 신앙생활 이유, '복 받기 위해' 개신교인보다 4배 높아!

-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06)-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이단 신자와 일반 개신교인의 신앙 행태 및 신앙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1, 2위로 나타났지만 이단 신자의 경우 일반 개신교인보다 10%p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건강, 재물, 성공 등 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은 이단 신자가 20%로 일반 개신교인(5%) 대비 4배나 높아 두 그룹간 신앙 생활의 목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신앙생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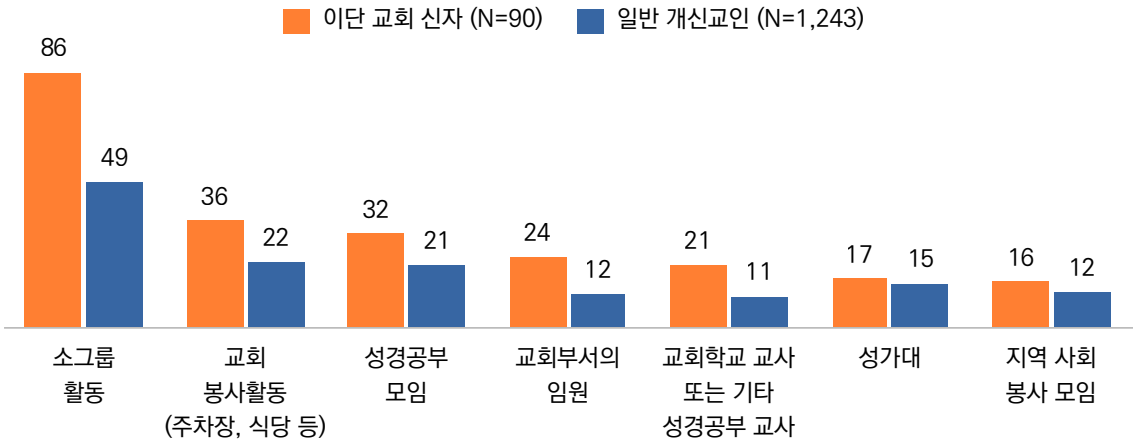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일반 개신교인 1,243명, 이단신자 90명, 온라인조사, 2023.01.)

◎ 이단 신자의 교회 내 활동률, 일반 개신교인보다 대체로 높아!

-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물은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이단 신자가 일반 개신교인 대비 높은 활동률을 보였다. 특히 '소그룹 활동률'에서는 이단 신자(87%)가 개신교인(49%)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단 내 소그룹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현재 하고 있는 교회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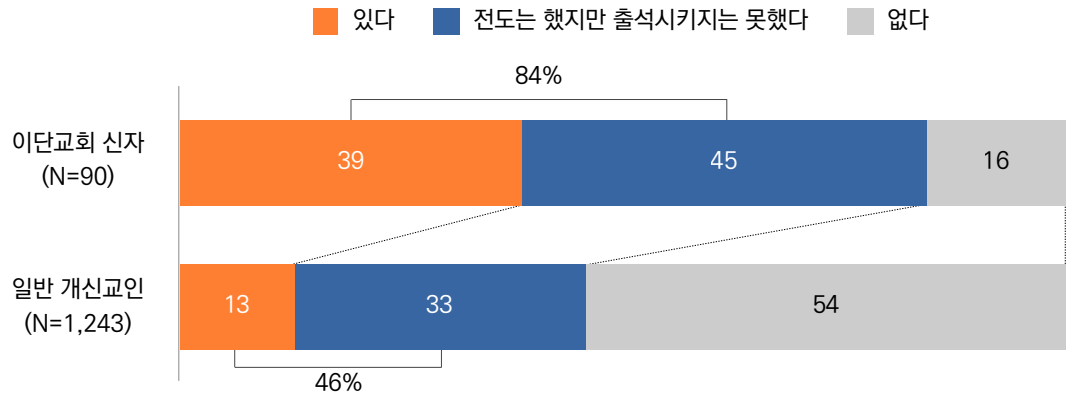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일반 개신교인 1,243명, 이단신자 90명, 온라인조사, 2023.01.)

◎ 이단 신자의 전도, 일반 개신교인보다 3배 높아!

- 이단 신자와 일반 개신교인 두 그룹 간의 활동률 외에도 큰 차이를 보인 활동이 있는데 바로 전도였다. '지난 1년간 전도한 경험'(있다+전도했으나 출석시키지는 못했다)은 '이단 신자'가 84%, '일반 개신교인'이 46%로, 전도 경험 또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 경험'만 놓고 보면 '이단 신자' 39%, '일반 개신교인' 13%로 3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이단의 포교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지난 1년간 전도하여 교회 출석시킨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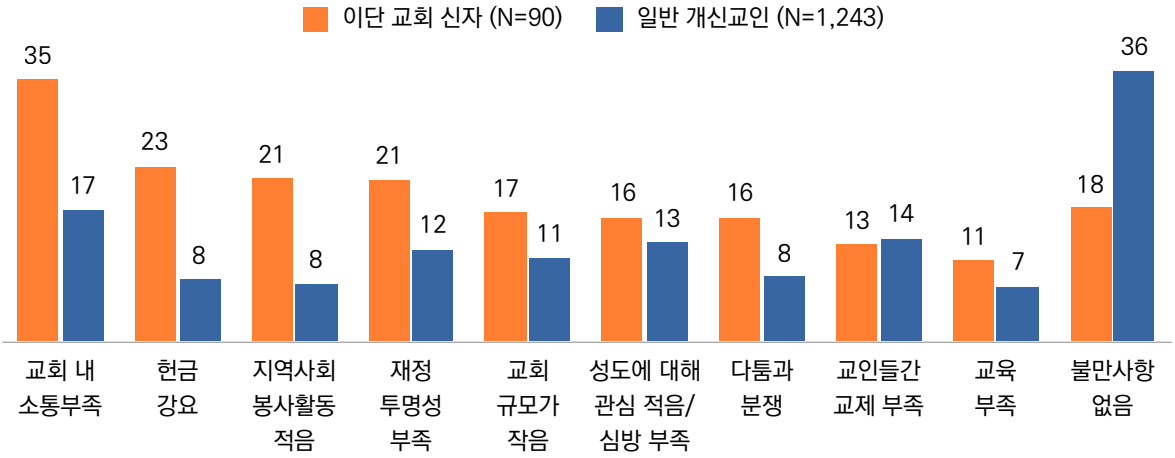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일반 개신교인 1,243명, 이단신자 90명, 온라인조사, 2023.01.)

◎ 이단 신자의 교회 불만 사항, 일반 개신교인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 이단 신자와 일반 개신교인에게 현 출석 교회에 불만인 점을 물었다. 이단 신자는 '교회 내 소통 부족'(35%)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고, 이어 '헌금 강요' 23%,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음' 21%, '재정 투명성 부족' 21% 등을 불만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체적으로 출석교회에 대한 이단 신자들의 불만 사항이 일반 개신교인 대비 '교인 간 교제 부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단 신자들이 현재 자신이 속한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불만이 있는 경우를 보면 이단 신자 82%, 일반 개신교인 64%로 이단 신자에서 훨씬 높았다.

[그림] 출석교회 불만점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일반 개신교인 1,243명, 이단신자 90명, 온라인조사, 2023.01.)

시사점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이단의 문제는 늘 있어 온 일이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신천지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만큼 주목받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JMS의 정명석이 성추행 혐의라는 죄명으로 구속된 일도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이단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저버림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이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단 교리의 허구성을 밝혀서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으로 인해 받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피해를 고발함으로써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 그렇지만 이단 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 이번 「넘버즈 203호」의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자. 첫째로 이단 신자의 규모가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가운데 8.2%인 점이다. 이는 약 45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한국교회에서 이단 신자의 숫자는 최소 31만 명~최대 59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회 출석자의 약 10%에 가깝다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둘째는 이단 신자 가운데는 40대 이하의 젊은이가 69%나 될 정도로 이단은 젊은 종교라는 점이다. 이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신자의 평균 연령이 22세라는 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 개신교인에서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이단에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단에 젊은이가 많을까? 그 이유는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보는 현재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이며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또 이들은 미래를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 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인식이 강하다.[1)]

이단 상담 전문가 유영철 장로는 경쟁 사회 속에서 극심한 실업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데 이단은 이 불안 심리를 파고든다고 분석한다.[2)]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단 신자들이 신앙 생활하는 이유로 '건강, 재물, 성공 등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였는데, 일반 개신교인은 5%밖에 되지 않았다. 기복 신앙적 요소가 일반 개신교인보다 4배나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와 청년 세대가 현실에서 좌절한다는 현실은 하나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힌 청년 세대들은 그 돌파구의 하나로 만사형통, 소원성취, 돈, 성공 등 축복을 약속하는 이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벗어났지만, 기복적 욕구는 인간에게는 없어지지 않을 욕구이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기복 신앙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기복 신앙이라는 왜곡된 신앙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 청년 세대의 현실적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목회자들은 이단이 확산되는 이유가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주기(30%)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세대에서 보듯이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도 변하고 다양해진다.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구분하여 지도해야 한다. 그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1)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시대, 기독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자료집, 2021.01.27.
2) 유영철 장로, '이단에 빠지는 심리적 이유' 「현대종교」 2021.09.29.